



여기는 산타의 나라, 담양 15일 오후 담양 메타프로방스에서 열린 제3회 산타축제장을 찾은 한 가족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스타트

후보자들 본격 선거운동 돌입

선거제 지역구 통합합 축각속

현수막·캠프 인력 구하기 경쟁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하면서 광주·전남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구 개편 전방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선거구 변화에 따른 광주·전남 선거 판세 변동도 예상되며, 여당 프리미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또 대안신당 등 광주·전남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돌풍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본사 인사

▶ 김일환: 전무이사

▶ 최재호: 편집국장

〈12월 16일자〉

반면, '4+1 협의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확정 난항도 우려되는 등 총선 불안 요소도 여전하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4월 15일) 120일 전인 17일부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란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인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공직 사직·전과 기록·학력 등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단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는 예비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이 안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 관계자도 둘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벌써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명당자리'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 선거 캠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후보자마다 검증된 인력 모시기 경쟁도 뜨겁다. 이미 광주시의회 보좌관 출신, 과거 선거 캠프 인사들이 내년 총선 캠프로 합류했다.

후보자들도 출마 회견, 출판기념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세를 이에도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지

지를 속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경선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3지대 결집을 모색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현역 중진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확보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진보 정당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광주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14일 광주에서 정치 페스티벌을 열고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민중당도 12일 김선동(순천) 전 의원, 유현주(광양·구례·곡성) 전 전남도의회 의원, 안주용(나주·화순)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2·12 자축 호화 오찬 전두환 오늘 광주재판 강제구인해야”

오월 단체 등 국민적 공분

5·18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주장하며 불출석을 이어온 전두환(88)씨가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향후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7일 골프라운딩에 이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고급 음식점에서 ‘삭스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재판부가 전씨의 불출석을 계속 용인할지 아니면, 소환 요구나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8번째 증인신문이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 회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헬기 사격과 관련해 당시 군 간부와 당시 헬기 조종사 등이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애초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김 부사령관과 김 전투발전부장은 이미 고인이 돼 일부 증인을 교체 신청했다. 전씨 측은 최씨, 손씨와 더불어 추가로 당시 헬기조종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5·18당시 전교사 중대장이었던 최모씨가 1997년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보면, 최씨는 당시 도청과 금남로 상공에서 경찰헬기가 전투 방송을 한 사실은 본적이었지만 헬기 사격은 모른다는 취지의 진

술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씨는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의 입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5·18 단체들의 설명이다.

또한 전씨는 지난 3월 인정신문에 한차례 출석한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씨를 구속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전씨에게 소환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고 변호인이 선임돼 방어진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최근 ‘12·12 삭스핀 오찬’이 또다시 목격된 것이다.

5월 단체들은 전씨의 건강이상은 핑계라며, 광주의 법정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전씨 일당의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고 있다”며 “그의 죄과에 너무 관대했고 안일했다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두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영진흥센터 1순위 입지 남부대 선정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을 남기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레거시’ 핵심 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 입지 1순위 후보지로 대회 주 경기장으로 사용된 남부대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15일 “한국수영진흥센터 후보지 평가위원회가 지난 13일 1순위로 광산구 남부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대는 기존 시설 활용과 토목 공사 최소화로 예산 절감이 가능한 점, 주 경기장이라는 상징성, 창설 예정인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의 시너지 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후보지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과열 경쟁을 예방하려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구별로 공정 경쟁 약속서를 받았다.

광주시는 1순위 후보지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연면적 1만2000㎡ 부지에 3층 규모로 국제 규격의 50m 경영 풀,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각종 회의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토닥 토닥 청년일자리 Job Cafe

취준생을 위한
핫~플레이스
청년일자리잡카페에서
취업기회 job go~!
취업의 꿈을 펼쳐봐요~

01

추천 꿀팁

면접 정장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메이크업

02

스터디룸
AI모의면접실
카페공간
도서공간

03

취업스터디
취업아카데미
청년원데이클래스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 운영: 월~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장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4
서광주농협 윤천지점 2F
(세정아울렛 부근)

· 문의: 062-372-5990~1
www.todaktodakjob.com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